

한일시멘트, 백색컬러 콘크리트 최초 생산

한일시멘트는 마감재가 따로 필요없는 백색컬러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생산해 시공한다고 7월18일 발표했다.

백색컬러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처럼 페인트, 벽지, 석재 등을 이용해 따로 마감할 필요없이 구조물 자체에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생산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시멘트는 7월12일 백색컬러 콘크리트에 대해 <고내구성 백색컬러 콘크리트 조성물>로 특허를 취득했으며, 계룡건설, 트라이포드와 합작으로 건설하고 있는 대전시 소재 <이용노 미술관>(2007년 1월 완공 예정) 신축 공사 현장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백색칼라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 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며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 도입으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레미콘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0>